

역량교육을 통해 바라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담론: 인권을 중심으로

신민혜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초빙교수

Practical discourse of civil democracy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 through the lense of competency
education: based on human rights

Min-Hye Shin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법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인권, 세계시민역량, 미래 학습 틀, 교육과정 재설계, 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how and what human rights education goes with civil democracy education. Analysis of civil democracy education contents in the 2022 revised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draft and that of the 2030 OECD Education project have been performed to find out what contents are necessarily includ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human rights education needs to be adopt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o be delivered with detailed and organized information. Secondly, actual experiences in diverse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need to be provided. Thirdly, a human rights-friendly atmosphere needs to be established to update teachers' perception and upgrade competency regarding human rights education. Lastly, it is expected that these activities facilitate adop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um into 2022 general education.

Key Words : human rights, global citizenship, future learning framework, curriculum redesign, competency

*본 논문은 2022년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역량중심교육을 통해 바라본 인권교육의 실천적 담론」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Min-Hye Shin(osmho78@wku.ac.kr)

Received April 13,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15,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Over the top : OTT)은 4차 산업에서 미래 교육의 필요 형식과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과 기후환경의 변화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역량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1].

2021년 11월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은 미래 교육 비전 정립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교육과정 체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역량 교육의 강조에 더해 이미 해외 각국에서도 역량 교육과정의 중요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2,3]. 기존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획일화된 능력을 중시하였지만, 현재는 학습자의 고유한 능력 즉 문제해결력 및 자기 주도성, 창의성, 도전정신, 협동과 배려, 공감 등의 태도적 가치 함양을 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4].

물론 역량에 더해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 확장과 이에 대한 요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 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왔다[5]. 민주시민교육의 세부 주요 내용은 인권, 국제이해, 협력, 지속 발전성 등을 포함하는데[6], 특히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제시 및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필수적 내용 체제의 삽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5-7].

그리고 UN <아동 권리 협약>의 교육 목적(제29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에 대한 인간 존엄성 및 동등함, 양도 불가한 권리에 대한 협약의 핵심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아동 권리의 실현과 인간 존엄성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동 권리협약 제29조 1항에서는 인권 존중 발달(제29조-1항-b), 소속감 및 주체성의 향상(제29조-1항-c), 아동의 사회화 및 타인(제29조-1항-d), 환경과의 상호작용(제29조-1항-e) 등을 포함한 아동의 잠재력의 전체적 발달(제29조-1항-a)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다수의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에 대한 연구와 협약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5-9]. 그렇다면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를 위한 질적 내용의 담보와 방향성은 어떠한가? 현실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 중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적 내용의 구축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인 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 및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목표와 내용 분석과 함께 OECD Education 2030에 근거한 학교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내용 강조와 인권 관점의 반영을 위한 실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따른 역량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DeSeCo 프로젝트[10]의 후속 연구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핵심역량의 필요와 강조를 제시하면서 학교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11]. 초기 연구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의 기본 개념과 의미를 밝히고, 교육과정 설계에서 역량을 담보한 전개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4,11].

이후 2015년부터 착수된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 현장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진행되었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역량을 통해 탐구하고, 교육 환경 시스템이 미래 필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 및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미래 사회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학습 나침반’으로 설명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필요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계획, 실천하기 위한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과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보다 자발적인 태도 및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의 강조도 함께 제기되었는데, 학생은 동료 학생과의 협력과 교사, 학교, 지역사회

회와의 연계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의 <Fig. 1>은 OECD 2030 Education 프로젝트에 제시된 학습 나침반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며, 국문 용어는 김종윤이 게시한 내용임을 밝힌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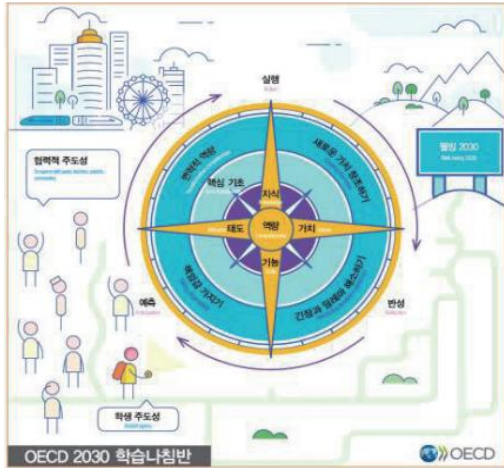


Fig. 1.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8]

위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 교육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긴장과 딜레마 해소, 책임감 가지기, 변혁적 역량의 강조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개념으로 기능과 태도,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공감, 존중, 협동, 협력, 끈기와 회복력, 신뢰에 강조와 복합적 소양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글로벌 역량을 등을 미래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최근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1]의 주요 개정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목표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의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과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책임교육 구현,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디지털 및 AI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평가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 중 미래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의 핵심 가치로 ‘자기 주도성’과 ‘창의’, ‘혁신’, ‘포용성’, 그리고 ‘시민성’을 토대로 재구조화하여 해당 인간상과 각 핵심 역량을 연계한 교육목표 제시를 통해 차기 2022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보여주었다[1]. 특히 인간상의 의미와 설정에서 (자기주도성)-주체성 및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

의 및 혁신)-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 도전 정신, (포용성 및 시민성)-공동체 의식, 배려, 공감, 소통, 협력에 대한 하위내용의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이는 결국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해당 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로의 지향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등을 개인 및 공동체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태도 함양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현행 교육목표에 더해 시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목표와 내용 기준(안)>에 대한 내용이다.

“(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 국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위의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중 시민 가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현행 교육목표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초·중·고 각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목표에서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민주시민의 태도 함양’(초등학교), ‘진로와 삶의 의미 탐색 및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 함양’(중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 함양’(고등학교)이라는 주요 핵심 내용에서는 민주시민의 가치(태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인권적 요소에 대한 의식 함양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경험 가능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인권교육과 학생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의 구현이 필요해 보인다.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요소 중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2]. 물론 차기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가치)-자기 주도성, 창의, 혁신, 그리고 포용성, 시민성을 중심으로 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인간상의 재구조화와 함께 해당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한 교육목표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배려, 협력, 소통,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시민성' 반영과 강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1]. 이렇듯 사회가 요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및 확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5].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삶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내용으로 접근 및 제시되고 있다[6].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과 국제이해, 협력, 지속 발전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사회로의 변화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있다[6].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해당 교육내용은 학교 교육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인권 관련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9].

학교 인권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5]. 초·중·고 전 교육과정은 '인권 관점'이 포함돼 있기에 생애 전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인권 상황을 실제적이고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급별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력을 기르고,

다양하고도 새로운 경험 제공 및 상상력을 키우는데 목표의 중점을 두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력 함양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존중 및 소통을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을 이미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교 인권교육은 실제 학습자가 체감하고 행동 및 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학교 인권교육은 지식 전달을 통한 인지적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 교육과정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체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제시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는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12].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 및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체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3]. 특히 인권교육은 전 교육과정 내 인권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권교육의 깊이와 내용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적극적 실행과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서 법교과 학습을 통해 인권교육의 반영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권 교과목 개설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학습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 교과과정에서 인권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수교과로 시행될 때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목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단위 학교와 교사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의 목표, 내용 체계,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교사의 개인 역량과 단위 학교의 환경적, 문화적 상황은 해당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실천을 촉진 또는 제약하기 때문에[13] 교수-학습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필연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인권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학교는 각 교과 학습 및 법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자발적,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을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생-교사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동료 교사 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확장하는데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 강조와 변화의 기본 전제는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및 환경 조성에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구성원-학교-지역사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노력을 통해 선순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위협하였고, 교육 현장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한 기후 위기와 지구 환경, 전쟁, 테러, 인류 공동체에 대한 관심, 각국이 마주한 특수한 과제 등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와 내용 강조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나 차기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21).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2] Ministry of Education. (2015).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No. 2015-80.

[3] M. H Shin. & S. Y. Kim. (2022). Alternatives to Improving the Curriculum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o Enhance Future Responsivenes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9(11), 537-543.
DOI : 10.14400/JDC.2021.19.11.537

[4] M. H Shin. & N. K. Cho. (2019).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the expansion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pectrums in the dance department. *Research in Dance Education*, 20(2), 208-224.

[5] H. N. Park. & S. J. Um. & H. H. Cho. & J. H. Kim. & S. J. Jung. (2021). Teach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t Different School Level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53(2), 1-29.
DOI : 10.35557/trce.53.2.202106.001

[6] S. Choi. & J. Y. Lee. (202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Expression Textbooks. *Journal of Dance Studies*, 81, 115-129.
DOI : 10.16877/kjds.81.1.202103.115

[7] UN. (2015).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8] J. Y. Kim. (2020). OECD Education 2030 Project Phase 1 Research Achievement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73, 26-29.

[9] H. J. Song. & J. H. Koo. & S. R. Pak. (2021). A Study on developing a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14(2), 79-102.
DOI : 10.35881/HLER.2021.14.2.4

[10]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 OECD.

[11] J. Y. Kim. & M. K. Lee. & I. S. Choi. & K. B. Lee. & H. S. Bae. & I. S. Park. & S. Z. Lee. (2021). *Exploring the directions of Korean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based on the OECD Education 2030 Framework: Focusing on student agency and co-agency*. Seoul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12] S. E. Lee. & K. H. So. (2019). Analysis of Change Trends on OECD's Competencies Frameworks for Curriculum Redesign: Focused on "Education 2030".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7), 139-164.

[13] K. H. So. & Y. R. Choi. (2020). The role of schools as mediating contexts for teachers' education reform practices: Focusing on the case of "free semester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8), 33-58.
DOI : 10.24211/tjkte.2019.36.3.289

신 민 혜 (Min-Hye Shin)

✉



· 200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무용학사)
· 201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1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생활체육 및 무용, 역량교육
· E-Mail : osmho78@wku.ac.kr